

# 구.약.편

홍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비상임 연구원

## 1. 본문: 에스겔 8장 17절

### 가. 히브리어 본문

וַיֹּאמֶר אֵלַי הֲרֵאִיתָ בְּרָאשֵׁי הַנְּקָל לְבַיִת יְהוָה מַעֲשׂוֹת אֲשֶׁר הִתְחַלְעַבּוֹת אֲשֶׁר עָשׂוּבָה  
בְּרִמְלָאוֹ אֶת־הָאָרֶץ הַמָּס וַיִּשְׁבוּ לְהַכְעִיבֵנִי וְהָנָם שְׁלֹחִים אֶת־הַמִּזְבֵּחַ אֶל־אֲפָסָם:

### 나. LXX(70인역) 본문

*καὶ εἶπεν πρὸς με ἑώρακας υἱὲ ἀνθρώπου μὴ μικρὰ τῷ οἴκῳ  
Ιουδα τοῦ ποιεῖν τὰς ἀνομίας  
ὡς πεποιθήκασιν ὧδε διότι ἐπλησαν τὴν γῆν ἀνομίας καὶ ἰδοὺ  
αὐτοὶ ὡς μυκτηρίζοντες*

## 2. 본문번역

### 가. 개역개정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에제키엘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야, 보았느냐? 여기에서 저 지르는 저 역겨운 짓들이, 유다 집안에게는 하찮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 계속 내 화를 돋운다.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코에 갖다 대고 있지 않느냐?**”

다. 새번역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으며, 나의 분노를 티뜨리는 일을 더 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라. NIV

He said to me, “Have you seen this, son of man? Is it a trivial matter for the house of Judah to do the detestable things they are doing here? Must they also fill the land with violence and continually provoke me to anger? ***Look at them putting the branch to their nose!***”

마. NRSV

Then he said to me, “Have you seen this, O mortal? Is it not bad enough that the house of Judah commits the abominations done here? Must they fill the land with violence, and provoke my anger still further? ***See, they are putting the branch to their nose!***”

바. TNK

And He said to me, “Do you see, O mortal? Is it not enough for the

House of Judah to practice the abominations that they have committed here, that they must fill the country with lawlessness and provoke Me still further and *thrust the branch to their nostrils?*

사. 본문에 대한 사역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보았느냐?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들이 유다 집에게는 하찮게 여겨지더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나를 노엽게 하느니라. **그들을 보아라. 내 코에 그 나뭇가지를 가져오고 있느니라.**

3. 동사분해

לְהַקְלֵי (הִקְלִי [be slight, trifling]의 니팔,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사소하다, 하찮다>)

לְמַלֵּא (מָלֵא [be full, fill]의 칼, 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들이 가득 채우다>)

לְשׁוּבָה (שׁוּבָה [turn back, return]의 칼, 바브 연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들이 또 다시 ~하다> HALOT ‘슈브’의 qal - 5번[to do again], 1430쪽)

לְהַקְדִּיפוּ (קָדַף [be vexed, angry]의 히필, 부정사, 1인칭, 남성 접미사 <나를 노엽게 하기 위해서>)

לְשַׁלֵּחַ (שָׁלַח [send]의 칼, 분사, 남성 복수, 절대형 <보내다>)

4.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

1) מוֹרָה

<즈모라>는 우리말로 ‘가지’로 옮길 수 있다. 민수기 13장 23절에서

는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 가지를 뜻하며, 나훔 2장 2절도 포도나무 헛가지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에스겔 8장 17절에서는 그 뜻이 분명치 않아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R. Gordis는 이것을 이방종교의 제의로 페르시아의 태양 숭배자들이 사용했던 나뭇가지 묶음으로 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화를 돌운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A. Jeremias, H. Gressmann, J. B. Pritchard, G. Fohrer, Saggs 등은 고대의 그림들에 나타나는 향기로운 꽃으로 보며(HALOT, 272쪽), 탈쿰은  $\text{סַחַח}$  <바흐타, ‘수치, 불명예’>로 번역하여 음란한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Zimmerli는 자신의 주석(195, 244-45쪽)에서 이 단어의 불분명함을 풀이하며, 그나마 이해해 볼 만한 것은 이스라엘 제사는 마땅히 아훼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 드려야 하는데, 아마도 본문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아훼의 코에 악취(stench)를 풍기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70인 역은 이를  $\mu\upsilon\kappa\tau\eta\rho\acute{\iota}\zeta\omega$  (turn up the nose at, mock, treat with contempt, 코를 돌려댄다, 비웃는다)로 번역하고 있으며,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의 사용을 유심히 살펴보면(눅 23:35; 갈 6:7)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공의를 조롱하는 표현임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 2) $\text{סַחַח}$

<아팜>은 우리말로 ‘그들의 코’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맛소라 학자들은 하나님의 신성함에 무례함을 보일 것 같은 표현을 피하기 위해 일찍이 맛소라 텍스트 가운데 몇몇 곳(약 18곳)을 수정하였을 것이라 믿었다. 이런 것들을 ‘필자 개선’(scribal correction)이라 부르는데, 맛소라 비평 장치에는 Tiquene Sopherim(Tiq soph)라는 용어로 표기되곤 한다. 그리고 원 맛소라 텍스트의 단어일 것으로 추측된 낱말을 기록해둔다. 그러므로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코에’가 본래는 ‘내(=하나님) 코에’( $\text{סַחַח}$  혹은  $\text{סַחַח}$ )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경스럽게 보였기에 지금처럼 바꿨다고 믿는다. 따라서 필자도 이 견해를 존중해서 ‘그들의

코에 나뭇가지를 가져온다' 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코에 나뭇가지를 가져오는 것' 으로 이해한다.

## 5. 설교에 적용하기

에스겔 8장은 커다란 단락 8장 1절-11장 25절의 첫 부분이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 현장을 영적인 체험으로 목격하고, 야훼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9:3; 10:4, 18; 11:23)을 보게 된다. 이 현장을 목격한 때는 제6년 6월 5일 곧 주전 592년 9월의 어느 날이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불과 5년 전임을 알 수 있다.

에스겔은 4단계에 걸쳐 더 거룩한 장소로 점점 다가간다. 북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본다. 둘째, 성전 내 한 방에서 메스껍고,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짐승 신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본다. 셋째, 이제 성전 바로 앞뜰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 넷째, 가장 안쪽 안뜰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야훼께서는 등을 지고, 얼굴을 우상에게 향한 채 벌어지는 태양 숭배 현장을 목격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상하게 했고, 따라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고가 본문 17절과 18절에 선포된다.

17절 “그들을 보아라. 내 코에 그 나뭇가지를 가져오고 있느니라”가 어떤 장면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질타하는 말씀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했던 모습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자들은 바웃어(ἐξεμικτήριζον)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 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눅 23:35)하고 십자가 상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하고 경멸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일치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

신여감을(*μικτηρίζεται*)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하나님의 코에 역겨운 냄새를 올리려는 모든 행위, 그분을 경멸하는 모든 삶의 포악들(하마스)은 그분의 공의하심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 홍성민** 서강대학교(B.E.)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석사과정 구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비상임 연구원으로 있다.